

지화장엄전시회

치 사

맑고 향기로운 기운이 온 누리의 풍요로움과 조화로운 감사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절기에 맞추어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매년 공모와 전시회를 통해 불교 지화문화의 정신을 현시대에 널리 고취시켜 왔습니다. 지화의 오랜 전통은 물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진력하시는 회장 정명스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불교지화는 예술적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번뇌 망상을 여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며, 유구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문화유산이 갖는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 모두가 보존하고 선양해야 하는 소중한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1580년 감로탱화의 지화장엄을 연구하고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이번 전시는, 정명스님의 불교지화에 대한 오롯한 열정과 각고의 수행정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깊게 여겨집니다. 활짝 핀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문화의 번성을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조화로우신 온 누리에 퍼지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심으로 이루신 이번 전시를 거듭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지화작품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만방에 알릴 수 있도록 정진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생명에게 행복을 선물하며 회향하기를 축원합니다.

불기2560년 9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